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10월 미 소매 판매 증가세 둔화
- WSJ: 연준, 더 크고 빠른 금리 인상 압박 직면

[금융]
- CNBC: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전망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 5% 또 상회
- Bloomberg: 엔비디아 젠슨 황, 이사회가 해임
- WSJ: 엔비디아 Colette Kress 임시 CEO로 선임

[중동 전쟁]
- Bloomberg: 트럼프 "이란과 협상 필요 없어... 부통령은 미국 문제에 집중해야"

[오일]
- Bloomberg: 트럼프 "이란과 협상 불필요" 발언에 국제유가 상승

[트럼프 관세]
- Bloomberg: 트럼프 "이민자 입국 안 막으면 멕시코 관세 2배 인상"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세계 경제, 'AI 거품'에 취약한 상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버버리, 트렌치코트 인기에 명품 불황 뚫고 실적 반등

미국 경제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10월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CNBC: Consumers are showing signs of strain even as they keep spending, CNBC/NRF Retail Monitor shows
10월 미 소매 판매 증가세 둔화

- CNBC/NRF(전미 소매협회)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고물가 압박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10월 소매판매 증가세가 약 1년 만에 가장 둔화됐다.
- 10월 총 소매지출은 5천6백17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며, 핵심 소매 지출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 늘어난 4천5백42억 달러를 기록했다.
- 전체 지출 성장세가 9월보다 둔화된 것은 높아진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

WSJ: Fed Forced to Confront Case for Bigger and Faster Rate Rises
연준, 더 크고 빠른 금리 인상 압박 직면

- 근원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높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근원 소비자물가는 연율 3.7% 상승해, 7월까지 3개월간의 상승률(1.6%)에서 크게 뛰었다. 이번 지표로 12월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 Christpher Waller 연준 이사와 Lorie Logan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인상 속도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번 지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금융]

CNBC: 10-year Treasury yield jumps back above 5% as oil gains and more Fed rate hikes expected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전망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 5% 또 상회

- 유가 상승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맞물리며 오늘 목요일 미 국채금리가 급등, 10년물 금리가 다시 5% 선을 넘어섰다.
- 모기지와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5.02%를 기록했다.
- 단기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한 4.797%를, 30년물 금리는 1.4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5.363%를 나타냈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5.093%	+0.104
US1M	U.S. 1 Month Treasury	3.955%	+0.013
US1Y	U.S. 1 Year Treasury	4.617%	+0.078
US2Y	U.S. 2 Year Treasury	4.85%	+0.123
US30Y	U.S. 30 Year Treasury	5.426%	+0.077
US3M	U.S. 3 Month Treasury	4.228%	+0.004
US6M	U.S. 6 Month Treasury	4.438%	+0.024

기사

Bloomberg: Huang, Face of the AI Boom, Ousted by Nvidia Board as CEO
엔비디아 젠슨 황, 이사회가 해임

-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는 여성을 포함한 두 건의 혼외정사 보도가 나온 직후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 이에 Colette Kress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로, Harvey Jones 가 이사회 의장으로 각각 선임됐으며 황 전 CEO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하다.
- 이번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한 163.32달러를 기록 중이며 시가총액 4천5백억 달러가 증발했고, 경영진 혼란의 충격은 AI 산업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기사

WSJ: Who Is Nvidia’s Interim CEO Colette Kress?
엔비디아 Colette Kress임시 CEO로 선임

- Colette Kress는 정식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 CEO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석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직을 계속 유지한다.
- 엔비디아 이사회는 정식 CEO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부 및 외부 후보군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다.
- Kress는 10년 넘게 이 AI 칩 거대 기업에 몸담아 왔다. 그녀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거대 기술 기업에서 재무 역할을 거쳤고 고객사들과의 수많은 거래를 통해 AI 산업 전반에 자금을 지원하는 엔비디아의 전략을 총괄해 왔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Trump Says No Need For Iran Deal, Vance Should Focus on US
트럼프 "이란과 협상 필요 없어... 부통령은 미국 문제에 집중해야"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JD 밴스 부통령에게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현재 진행 중인 물밑 접촉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 시도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 이로써 자신이 내세웠던 합의를 통한 목표인 '이란의 핵 보유 저지'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셈이다.

기사

[오일]

Bloomberg: Oil Rises After Trump Says the US Doesn’t Need a Deal With Iran
트럼프 "이란과 협상 불필요" 발언에 국제유가 상승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전쟁 종식의 돌파구 마련이 어두워지자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서 입장이 바뀌었을 보여주며, 이란 역시 강경한 태도를 시사하고 있다.
- 국제유가 기준물(브렌트유)은 올해 들어 50% 이상 급등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중동발 공급 회복과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분쟁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사

[트럼프 관세]

Bloomberg: Trump Threatens to Double Tariffs on Mexico Over Migrants
트럼프 "이민자 입국 안 막으면 멕시코 관세 2배 인상"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migrant caravans)'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 이에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 집단들의 입국 시도를 확인하면서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 이번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연장을 거부한 뒤 양국이 후속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rump Threatens to Double Tariffs on Mexico Over Migrants
트럼프 "이민자 입국 안 막으면 멕시코 관세 2배 인상"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migrant caravans)'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 이에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 집단들의 입국 시도를 확인하면서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 이번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연장을 거부한 뒤 양국이 후속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The Global Economy Looks Vulnerable to an AI Bust
세계 경제, 'AI 거품'에 취약한 상태

아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세계 경제가 'AI 거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는 이란 전쟁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에 의존해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다른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AI 투자가 둔화할 경우, 관련 국가들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리서치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수출 성장세의 최대 80%가 AI 품목에 집중돼 글로벌 무역이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기사

[미국 경제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10월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첨부합니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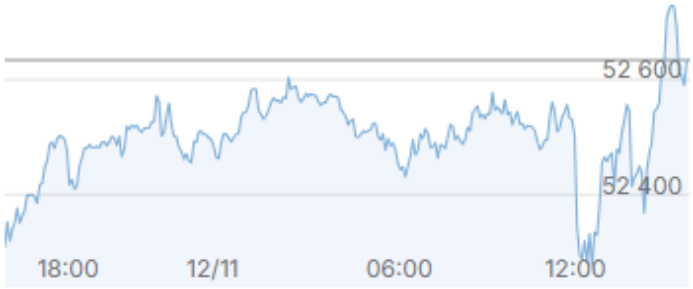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과 기뢰 피격 사건이 잇따르며 중동 해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정 항로를 벗어난 유조선 두 척이 기뢰에 피격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한 데 이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일대에서 리베리아 및 사우디 유조선 피격과 오만 섬 항법 시스템 공격 소식까지 잇따르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은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7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정학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2~94달러 선까지 반등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글로벌 해운 시장은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BDI(발틱건화물운임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한 달여 만에 최고치인 2,959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약 3년 만에 수에즈 운하 운항을 전격 재개하며 기존 아시아-유럽 항로 복귀 움직임에 합류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A 30	52,658.60	+173.8	+0.33%
USA 500	7,634.80	+15.5	+0.20%
US Tech 100	28,435.20	+61.0	+0.21%
Dow Jones	52,620.40	+133.91	+0.26%
S&P 500	7,634.80	+15.46	+0.20%
S&P 500 VIX	17.58	+0.09	+0.51%
Dollar Index	103.073	+0.253	+0.2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32/32	5.431	0.073
10-Year Note	5	-28/32	5.099	0.111
7-Year Note	4.875	-6/32	5.007	0.108
5-Year Note	4.75	-5/32	4.944	0.114
3-Year Note	4.625	-4/32	4.914	0.124
2-Year Note	4.625	-2/32	4.862	0.114
1-Year Bill	0	2/32	4.618	0.070
6-Month Bill	0	1/32	4.435	0.021
3-Month Bill	0	0/32	4.226	0.000
1-Month Bill	0	0/32	3.950	0.000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35.60	1,476.91	836.42	200.15	1.1091	103.15
-1.90 (0.14%)	-7.05 (0.48%)	-0.72 (0.09%)	-0.28 (0.14%)	-0.0073 (0.65%)	+0.24 (0.23%)
11. 13. 01:53 ● 실시간	11. 13. 01:53 ● 실시간	11. 13. 01:53 ● 실시간	11. 13. 01:53 ● 실시간	11. 11.	11. 12. 11:45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35.60
1,335.6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